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9. 6. 18(화)	담당부서	전력시장과
담당과장	박찬기 과장(044-203-5170)	담 당 자	이채원 서기관(044-203-5171) 하원석 사무관(044-203-5173)

누진제 태스크포스, 누진구간 확대안(1안)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

- '19.6.18(화) 제8차 누진제 태스크포스 회의 개최 -

□ 「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」(이하 '누진제 TF')는 '19.6.18(화) 제 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**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**을 **최종 권고안**으로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: 성윤모, 이하 '산업부')와 **한국전력공사**(사장: 김종갑, 이하 '한전')에 **제시**하였음

<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대안 >

[1안]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**하계**에만 **별도**로 **누진구간 확대** (누진구간 확대안)

[2안] **하계**에만 **누진 3단계**를 **폐지** (누진단계 축소안)

[3안] **연중 단일요금제** (누진제 폐지안)

○ **산업부와 한전**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, **'18.12월부터** 소비자 단체 및 학계, 국책 연구기관 등 **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 방안을 검토**해왔음

○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**소비자 의견의 다양성**을 고려하여 단일안이 아닌 **3개 대안**을 마련하고, **전문가 토론회, 공청회, 심층 여론조사, 인터넷 게시판** 등 **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**

* [토론회] 6.3 프레스센터, [공청회] 6.11 프레스센터, [인터넷 게시판] 6.4-6.17
[심층 여론조사] 6.4(서울), 6.5(경기), 6.10(충청), 6.13(전라, 경상)

□ 누진제 TF는 금일 위원간 논의를 통해 **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**하고 **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**한 결과 **누진구간 확대안(1안)**을 **최종안**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하였음

○ **누진구간 확대안(1안)**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**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**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**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**할 수 있는 점,

○ **여름철 수급관리** 차원에서 **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**가 있다는 점 등을 **종합**적으로 **고려**할 때 **선택 가능한 방안**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되었음

□ 반면, **누진단계 축소안(2안)**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**3단계 사용 가구(약 600만)에만 혜택이 제공**된다는 점이 부각되었음

□ **누진제 폐지안(3안)**의 경우 **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**는 점에도 불구,

○ **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(1,400만)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(800만)의 요금을 인하**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**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**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음

< 누진제 개편대안에 대한 민관TF 검토 결과 >

	1안(누진구간 완화)	2안(누진단계 축소)	3안(누진제 폐지)
의견수렴 주요내용	▸ 저소비가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낮은 요금을 부담 ▸ 다소비가구는 부담이 완화되므로 효과적	▸ 요금인상 가구없이 하계 요금부담 완화에 효과적	▸ 누진제는 폐지하되 단가는 93.3원으로 조정 ▸ 사용한 전기에 비례해서 요금을 납부할 필요
TF 검토결과	▸ 여름철 전력사용 패턴에 부합 ▸ 할인혜택의 보편적 제공과 수급관리 측면 등 종합 고려	▸ 전력사용량이 많은 3단계 사용가구에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제도 검토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	▸ 1,400만 가구의 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 추가 논의 필요

□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하여 한전이 **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**하고, **이사회 의결**을 거쳐 **정부에 인가신청**을 하게 되면,

○ 정부는 **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**를 거쳐 **'19.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**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이채원 서기관(☎ 044-203-5171) 또는 하원석 사무관(517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